

<환영> 한 주간 동안의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며 인사합니다. 한 주간에 가장 열심을 내서 붙들었던 섬김의 일들에 대해 서로 발표하며 칭찬하며 격려합니다.

<찬양> ♪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말씀> 행 10 : 1~8

1. 사도행전을 모두 읽어보셨습니까? 3대 사건으로 정리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로 나누어 봅시다.

3대 사건의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발표해봅시다.

2.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행10:1~2) 이방 나라 군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행10:3~6)

3.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며 보여주시며 내리신 명령은 무엇입니까?(행10:9~13) 이 때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이므로 잡아먹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그의 행동이 옳은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혀있는 것은 아닌지 나누어봅시다.

4. 베드로의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명령에 대해 살펴봅시다.(행10:15~16)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하며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일어난 놀라운 예배와 설교한 내용들을 읽어봅시다.(행10:17~43) 이 예배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행10:44~46)

5. 이후 예루살렘 총교회의 때 이방인 선교에 관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행15:1~6) 이 때 고넬료 회심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어떠한 입장에 있었습니까?(행15:7~11) 편견이 무너진 후, 이방인에게 복음이 더욱 활발히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어떤 종교적 편견에 갇혀 공동체나 개인을 어렵게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며 나누어봅시다.

6.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만 복음을 전하게 했다고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에는 누가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습니까?(벧전1:1~2)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선교적 제자로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캠퍼스 가운데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순종의 도구가 될지를 생각해보고 결단합니다.

<기도>

1. 개인/가정: 일상에서 선교적 제자로서의 사명을 발견하고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도록

2. 교회: 담임목사님의 강단사역과 모든 모임의 말씀의 풍성함을 위해

캠퍼스전도와 예람제의 부흥을 위해

주일학교와 교회학교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3. 나라: 조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오지에서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

민족의 통일과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설교요약>

1.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구체적인 환상을 보여주신다

사도행전에는 3대 사건이 있습니다. 신약 교회의 공식적 탄생을 알린 오순절 성령강림사건, 기독교역사의 분기점이 된 사울의 회심, 그리고 본문의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입니다. 세 가지 사건에는 이방인들에게도 택한 백성이 있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군대의 백부장이며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10:1,2)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 로마에는 끝 모를 도덕적 타락으로 깊은 영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타락이 깊어질수록 한편에는 공허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환멸을 가지고 있던 중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받아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욥바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기거하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 말씀을 들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10:5,6) 그리고 이튿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황홀경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각종 짐승들이 담긴 그림을 보여주십니다.(10:9~12) 그리고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10:13) 이 때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다시 확정적으로 음성이 들려옵니다.

2. 베드로는 종교적 편견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한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옳게 보이려 하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 편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할 정도로 가장 큰 편견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 중에 보자기에 담긴 짐승들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며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10:15)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편견과 관습과 경험을 내려놓고 고넬료의 집으로 갔을 때, 고넬료가 앞드려 절하며 친지들과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10:24,25) 이 예배를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10:44~48)

3. 하나님은 베드로의 편견을 부서뜨려 구원의 도를 세우고 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은 선교사(史)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와 더불어 할례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행15:1)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종교회의를 열고 큰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행15:2) 이 후 베드로는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차별 없는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행15:7~11) 베드로는 이 지식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체득하였습니다. 자기도 무서운 편견에 붙잡혀 하나님의 제의를 거절하였었지만, 편견을 무너뜨리자 이방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이해하고 있는 종교적 편견에 갇혀 한 공동체나 개인을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틀 속에 갇혀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방 땅에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편견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베드로를 아시아로 가게 하셨습니다.(벧전1:1,2) 둘째,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처럼 삶의 현장과 절망의 현장 순종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선교적 제자로서 일터와 가정과 캠퍼스로 가서 그 캄캄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트이는 순종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Altus Edin * Nossa Deusé poderoso * LAMP 11

전능하신나-의주-하나-님은- 능치 못하실-일전-하-
 없-데- 우리 외모든-간구-도 우리 외모든-생각-도 우리
 외모든-광과-모든-소망-도- 전능하신나-의주-하나-님은
 - 우리의 모든과-로움-바람-수- 있-데- 불가-
 능한일-행하-서고죽은 자를일-오기-시니 그를 이길자-아무-도
 없-데- 주의왕을 의지하여- 깊은곳에 그물던져- 오늘
 그기들-라운-일몰-이로-서는-것보라- 주의왕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던져- 믿는 자에겐-능치-못할-없데-

언더우드의 기도문

주여!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나 합니까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수 있는 날이 있을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 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 아멘